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요즘 자녀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미취업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결혼 비용 등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끊이지 않아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부 합산 1억 연봉 가정에서 연간 사교육비가 3360만원 즉 연 수입 중 사교육비 비율이 33.6%라는 통계가 있다. 반면 2019년 기준 공적 사적 연금 확보 비율은 17.4%밖에 안 된다. 자녀 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돈은 계속 나가는데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 연금은 부실하기 짝

자녀 리스크와 자립, 그리고 부모의 노후

이 없다.

1980년대만 해도 부모는 자식 덕을 토포해 봤다. 노후를 자식 도움으로 해결하는 부모가 72%나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 도움으로 노후를 해결하는 부모는 얼마 안 된다. 참고로 미국은 0.7%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지금은 100세 시대로 노부모 부양 기간만 해도 최소 25~30년이다.

저성장 시대 점차 이직과 은퇴가 빨라지는 이 시기에, 부모는 한정된 자금을 슬기롭게 써야 한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학 등록금에, 사업 자금에, 결혼 비용에, 주택 마련 비용에 아무 생각 없이 대주다 보면, 막상 자신의 노후자금은 부족해지게 된다. 달랑 집 한 채를 빼고 나면 가진 게 별거 없는, 그러한 부모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단

언하자면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한정된 자금을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 지원에 쓰는 건 아깝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연금 드는 데엔 무관심한 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부 발표(2019)에 따르면, 전체 대졸자 순수 취업률은 50%대에 불과하다. 경희대 신동균 교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45세까지 주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확률은 20% 초반이다. 좋은 대학만 가면 스펙만 쌓으면 저절로 취업 되고, 취업만 하면 은퇴할 때까지 쫓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실직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자녀가 이를 담대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걸 쟁거루족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쟁거루족이 314만 명이나 있다. ‘좋은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가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해 나가도록 어릴 때부터 ‘자립’ 습관을 키워주는 일이다.

자녀 자립은 결국 부모 하기 나름이다. 자녀가 자기 계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사회성과 인성에 대해 성숙하게 성찰할 수 있는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소신 있게 교육하기 나름이다. 부모의 편안한 노후는 자녀의 자립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은퇴한 후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일해야 하는 부모,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자신의 노후 대비 없이 자녀 교육과 지원에 ‘헌신’한 부모 자신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늙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진짜 현명한 부모임을 잊어서 안 된다.

사설

갯벌습지 보호 지정하자마자 나빠졌다니

‘제주 오소리 갯벌’은 정부에서 지정한 제주의 첫 습지보호지역이다.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가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와 같은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0.24㎢를 일일이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오소리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황근 등 일부 식물이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소리마을회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일부 지점에서 갈대를 찾아보기 어렵고 황근은 고사 상태다. 물에 살던 보말(고동) 등도 폐사했다. 이 중에서 황근은 오소리 식산봉 바닷가 염습지에서 자라는 독특한 식물이며 ‘식산봉의 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으로 제주도기념물이 됐다. 마을회에서는 최근 들어 습지 환경이 악화된 데는 주변 농경지에 놓인 관으로 오폐

수가 유입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잇그제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서귀포시청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소리갯벌은 간조시간이 되면 갯벌이 되고 한라산과 함께 바다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겠다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이유다. 해수부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오소리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지역주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이 갈대로 살 수 없는 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습지가 배출되는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수질 검사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편집국 25시

전동 킥보드, 여전한 불편



송문혁
편집부 기자
smhg1218@ihalla.com

어느 날 집 입구에 딱하니 공유형 전동 킥보드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치워보려 했지만 너무 무겁고 경고음이 크게 울려 어쩔 줄 몰랐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전거에 적힌 불편사항 신고 접수 번호로 전화를 했다. 고객센터로부터 죄송하다며 바로 회수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해결됐지만 이 사달을 만든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액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운전하다가도 골목길 가운데 애매한 위치에 놓여 못 지나가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도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보행에 불편을 주었다. 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2명에서 나란히 타고 질주하거나 헬멧 등의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들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총 78건 발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지난 2020년 7건(사망자 1명, 부상자 6명), 2021년 31건(부상자 31명), 2022년 40건(부상자 43명)으로 총 78건(사망자 1명, 부상자 8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비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용자들 또한 부주의 및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난다. 자발적인 노력만을 강조하지 말고 제도적인 규제와 대책 마련이 우선시 됐으면 한다.

뉴스-in

“특별법 후속조치 철저히 준비를”

강 시장, 간부회의서 당부

○…강병삼 제주시장이 10일 주간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조직 재편, 사무·행정재산 배분 등이 수반되는 과제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주문.

그는 제주행정체제개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달 중 관련 용역 최종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해당 과제들을 제주도와 적극 협업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라고 재차 강조.

아울러 강 시장은 “새로 부임한 변영근 부시장이 시장 업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조력하고 혁신 프로세스, 도와 협업, 분야별 정책 과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라”고 당부. 백금탁기자

오페라 ‘순이삼촌’ 향방 관심

○…제주아트센터가 10일 발표한 올해 기획공연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은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을 올해도 제주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을 원작으로 한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은 지난 2020년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 후 지난해까지 제주시와 제주4·3평화재단 공동기획으로 제주아트센터 무대에 올랐고, 경기, 서울, 부산 등지에서도 공연.

올해의 경우 현재 제주4·3평화재단만 관련 예산(1억3000만원)을 확보해 예산에 맞춘 공연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도 무대에 올릴지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 오은지기자

딥페이크 선거운동 철저히 차단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부터 인공지는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의정보고회 개최,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 금지되고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인공지는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까지 허용됐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됐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등을 일컫는다.

사람의 영상을 변조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범죄에 오남용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선거운동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상특별대응팀을 편성했고, 11일부터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를 통한 술수를 쓰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데 유권자들도 나서야 한다.

진정성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혜안(慧眼)을 갖고,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주체들은 불법선거를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고

임순자 어머니 남양홍씨 인숙(향년 92세)께서 서기 2024년 1월 9일 21시 32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4년 1월 11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4년 1월 12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양지공원 → 호국원

딸	임순자	사위	김중생
	애자		강희찬
	미자		
외손	김태윤		
	성윤	외손부	손정희
	강훈민		김희정
	수민		김정미
	김소연	외손서	부원호
	승연		
	양성수		
	성렬		

※ 연락처 : 김중생 010-7218-9992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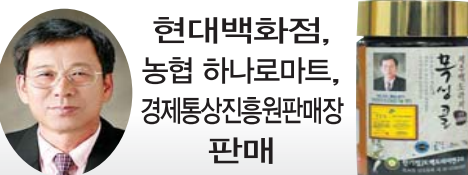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문준(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월 11일

배우자	양선옥		
아들	이경훈	며느리	박정혜
딸	이명희	사위	안수진
	승미		김군세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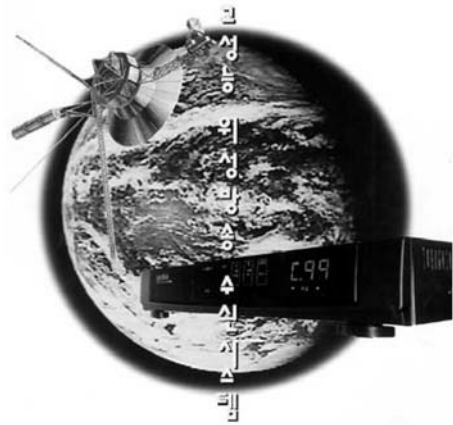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안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 (가임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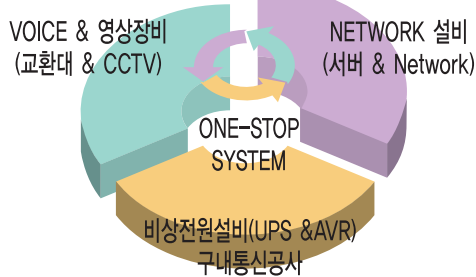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 열린 기술 습득
- ◆ 기술인력 개발
-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